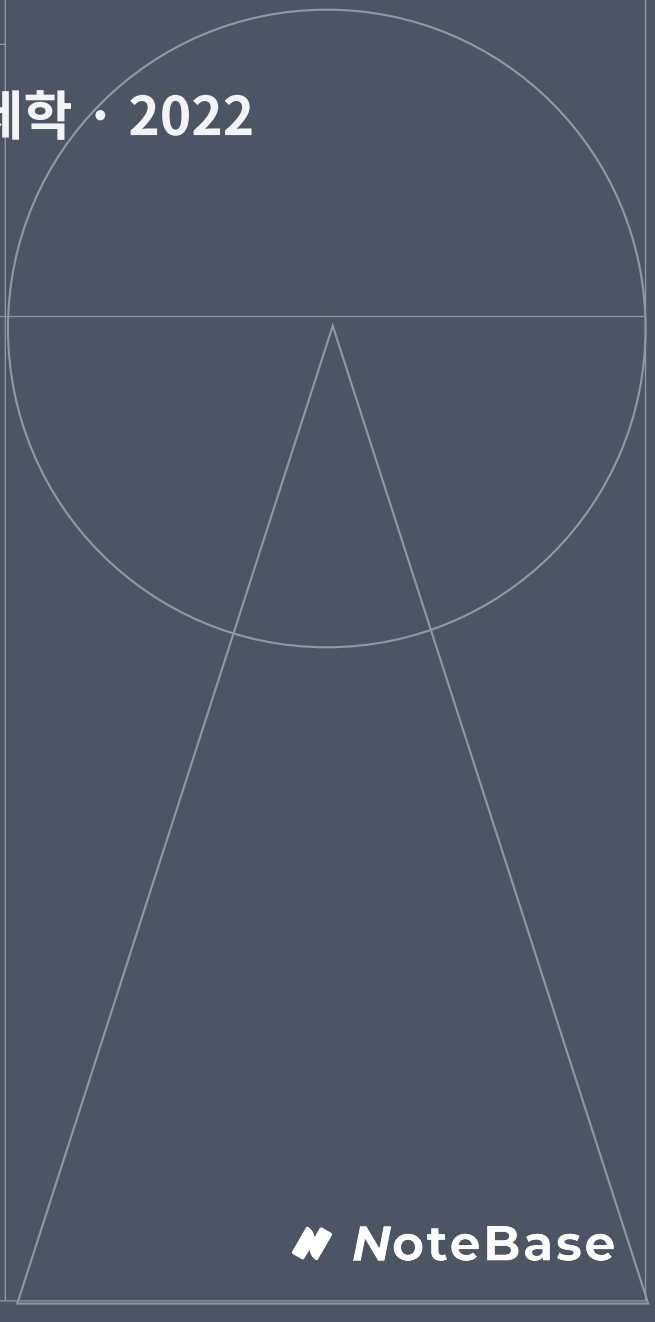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2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2

문 1.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분류할 때,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로 옳은 것은?

① 국방

② 일반적 지식

③ 민자 유료도로

④ 민간 구급 서비스

⑤ 공해(公海)상의 어류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화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공공재, 공유자원, 클럽재, 사적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편익이 줄어드는 성질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면 공공재이고,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면 공유자원이다.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면 클럽재이고,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면 사적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2

선지별 해설

① X
- 국방은 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국방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특정 국민만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이다.
- 틀린 표현은 '국방'을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국방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이다.

② X
- 일반적 지식은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이 강하고, 널리 알려진 지식은 배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 틀린 표현은 '일반적 지식'을 경합성이 있는 재화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적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에 가깝다.

③ X
- 민자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통행에서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혼잡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비경합성이 강해 클럽재로 설명되고, 혼잡하면 경합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비배제성 재화는 아니다.
- 틀린 표현은 '민자 유료도로'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민자 유료도로는 배제성이 있는 재화이다.

④ X
- 민간 공급 서비스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생산자의 시간이나 설비를 특정 소비자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재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민간 공급 서비스'를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민간 공급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재이다.

⑤ O
- 공해상의 어류는 특정 사람을 어획에서 배제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잡으면 남아 있는 어류가 줄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공유자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비배제성'만 보고 국방이나 일반적 지식을 고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배제성뿐 아니라 경합성도 동시에 있어야 하므로, 소비하면 남의 소비 가능량이 줄어드는 공해상의 어류가 정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로 배제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한 사람이 소비하면 남의 몫이 줄어드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못 막지만 먼저 쓰면 줄어드는 것'은 공유자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 공유자원은 비배제·경합, 클럽재는 배제·비경합, 사적재는 배제·경합이다.

문 2.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다.

② 독점기업이 항상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독점기업에 대한 러너(Lerner)의 독점력 지수도 낮아진다.

④ 독점기업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⑤ 독점기업이 완전한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가격차별, 러너의 독점력 지수를 함께 묻는 개념비교형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기업: 시장수요곡선을 마주 보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산출량을 선택하는 기업이다.
수요탄력성과 독점력: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P - MC)/P$이고, 이윤극대화 독점기업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작을수록 가격-한계비용 마크업이 커진다.
가격차별: 같은 재화라도 소비자 집단의 지불의사나 수요탄력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한계수입이 음수가 된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에서 $MR = MC$를 맞추는데, 일반적으로 MC가 음수가 아니므로 한계수입이 음수인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다.

② O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독점력은 가격설정력을 뜻하지만, 수요가 작거나 비용이 높으면 경제적 이윤은 0이거나 음수일 수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 러너의 독점력 지수도 낮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낮을수록 독점기업의 마크업이 커져 러너의 독점력 지수는 높아진다.

④ O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이윤을 키우는 방향이다.

⑤ O
완전가격차별은 각 소비자의 최대지불의사에 맞추어 가격을 부과하므로 거래 가능한 소비자잉여를 기업이 흡수한다. 이때 경쟁균형 수준까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탄력성이 낮다"를 "독점력도 낮다"로 연결하게 만든 함정이다. 독점가격 설정에서는 반대로, 수요가 덜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덜 반응하므로 가격-한계비용 차이가 커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기업 문제에서는 먼저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를 확인하고, 가격차별은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고 판단한다. 러너 지수는 수요탄력성 절댓값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정리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력은 탄력성과 반비례한다. 수요가 덜 탄력적일수록 마크업과 러너 지수는 커진다.

NoteBase

문 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그 누적소득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③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로렌츠곡선은 교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렌츠곡선이 소득분배의 누적분포를 나타내는 방식과 지니계수가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은 인구를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배열한 뒤,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완전평등선은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이 같은 45도 대각선이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완전평등선에서 멀어지고 아래쪽으로 더 휘어진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구성원부터 높은 구성원 순으로 나열하고, 그 누적소득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이다. 실제로는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서 더 멀어진다.

③ O
두 나라의 로렌츠곡선은 구간별 소득분포가 서로 다르면 교차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모든 누적인구 구간에서 항상 더 평등하다고 단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④ O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은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⑤ O
지니계수가 클수록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커진다는 뜻이므로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더 커진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②의 방향 표현이다.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므로 "불균등할수록 가까워진다"는 반대 진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렌츠곡선 문제에서는 먼저 대각선을 완전평등선으로 잡고, 곡선이 그 선에서 멀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지니계수 문제에서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로렌츠곡선은 낮은 소득자부터 누적,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4. 피셔가설(Fisher Hypothesis)이 완벽히 성립하는 경제에서 실질이자율이 2%이고 인플레이션율이 4%이다. 이자소득세율이 20%라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① 2.8%

② 4.8%

③ 6%

④ 7.2%

⑤ 8%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셔가설에서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한 뒤, 이자소득세가 명목이자소득에 부과될 때의 세후 명목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질이자율 2%, 인플레이션율 4%, 이자소득세율 20%.
구해야 할 값: 세후 명목이자율.
주의할 조건: 세금은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에 부과된다.

사용할 공식

피셔가설의 근사식은 $i \approx r + \pi$이다.
세후 명목이자율은 $i(1 - t)$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피셔가설이 완벽히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세전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구하고, 이자소득세율 20%는 그 명목이자율에서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한다.
$i = r + \pi = 2\% + 4\% = 6\%$
2. 이자소득세율 20%를 반영한다.
$i(1 - t) = 6\% \times (1 - 0.2)$
3. 세후 명목이자율은 4.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8%는 계산 결과 4.8%와 다르다. 틀린 표현 2.8%는 올바르게는 4.8%이다.

② O
- 세전 명목이자율 6%에 세후 비율 80%를 곱하면 4.8%가 된다.

③ X
- 6%는 세전 명목이자율이다. 틀린 표현 6%는 올바르게는 세전 명목이자율이고, 세후 명목이자율은 4.8%이다.

④ X
- 7.2%는 명목이자율에 세율을 잘못 더하거나 세금 방향을 반대로 처리한 값에 가깝다. 틀린 표현 7.2%는 올바르게는 4.8%이다.

⑤ X
- 8%는 실질이자율 2%와 인플레이션율 4%를 더한 뒤 세금을 차감하는 구조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8%는 올바르게는 4.8%이다.

계산 결과 4.8%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세금을 실질이자율에만 적용하거나, 세전 명목이자율 6%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는 것이다.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소득에 부과되므로 6%에 80%를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셔가설 문제는 먼저 $i = r + \pi$로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하고, 세율이 주어지면 명목이자율에 $(1 - t)$를 곱해 세후 명목이자율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셔가설은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이고,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율에 적용된다.

NoteBase

문 5.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라내기(Screening)는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② 신호발송(Signaling)을 통해 '감춰진 속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감춰진 속성'이 없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품질이 나빠진다.

⑤ '감춰진 속성'으로 인해 중고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감춰진 속성이 역선택을 만들 때, 골라내기와 신호발송이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완화시키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춰진 속성은 거래 전에 한쪽만 품질이나 위험 같은 특성을 더 잘 아는 정보 비대칭 상태이다.
역선택은 감춰진 속성 때문에 낮은 품질의 거래 상대가 시장에 더 많이 남는 현상이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품질 보증, 인증, 평판처럼 자신의 우수한 속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골라내기는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검사, 보증 요구, 조건 제시 등을 통해 상대의 속성을 구별하려는 행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골라내기(Screening)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의 감춰진 속성을 알아내려는 장치이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한다. 틀린 표현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이다. 올바르게는 '골라내기는 감춰진 속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이다.

② O
신호발송(Signaling)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품질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좋은 중고차 판매자가 보증이나 인증을 제시하면 구매자의 정보 부족이 줄어들 수 있다.

③ O
중고차 품질을 판매자가 더 잘 알고 구매자는 잘 모르면, 구매자는 평균적인 낮은 가격만 지불하려 한다. 그 결과 좋은 품질의 차가 빠지고 나쁜 품질의 차가 남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④ O
감춰진 속성이 있으면 구매자가 품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좋은 중고차가 제값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감춰진 속성이 없는 경우보다 시장에 남아 거래되는 중고차의 평균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⑤ O
감춰진 속성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품질 정보가 다르게 분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고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골라내기와 신호발송을 모두 정보 비대칭의 결과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라는 점을 놓치게 하는 것이다. 특히 ①의 '더 악화시킨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춰진 속성이 나오면 먼저 역선택을 떠올린다. 그다음 정보가 많은 쪽이 알리면 신호발송, 정보가 부족한 쪽이 가려내면 골라내기이며, 둘 다 원칙적으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장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춰진 속성은 역선택을 만들고, 신호발송과 골라내기는 그 역선택을 줄이는 장치이다.

NoteBase

문 6.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aY^b$이다. (단, $a + b = 1$) 소비자 갑이 X재를 2단위, Y재를 4단위 소비할 때, 그의 X재와 Y재 간 한계대체율이 4라면, a는?

① $\frac{1}{4}$
② $\frac{1}{3}$
③ $\frac{1}{2}$
④ $\frac{2}{3}$
⑤ 1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U(X, Y) = X^aY^b$에서 한계대체율 공식을 이용해 a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 + b = 1$, $X = 2$, $Y = 4$, X재와 Y재 간 한계대체율 $MRS_{XY} = 4$이다.
구해야 할 값: 지수 a이다.
주의할 조건: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MU_X = aX^{a-1}Y^b, \quad MU_Y = bX^aY^{b-1}$
$MRS_{XY} = \frac{MU_X}{MU_Y} = \frac{a}{b} \cdot \frac{Y}{X}$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특정 소비점 $(X, Y) = (2, 4)$의 한계대체율이 주어졌으므로, 한계효용의 비율을 이용해 a와 b의 비율을 먼저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X = 2$, $Y = 4$를 한계대체율 공식에 대입한다.
$4 = \frac{a}{b} \cdot \frac{4}{2}$
2. $\frac{4}{2} = 2$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4 = 2 \cdot \frac{a}{b}$
3. 따라서 $\frac{a}{b} = 2$, 즉 $a = 2b$이다.
4. $a + b = 1$에 대입하면 $2b + b = 1$이므로 $3b = 1$, $b = \frac{1}{3}$이다.
5. 따라서 $a = 2b = \frac{2}{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a의 계산값은 $\frac{2}{3}$이므로 $\frac{1}{4}$는 틀리다. 틀린 표현 $\frac{1}{4}$ → 올바르게는 $\frac{2}{3}$이다.

② X
- $a = 2b, a + b = 1$에서 $a = \frac{2}{3}$이므로 $\frac{1}{3}$은 a가 아니라 b의 값이다. 틀린 표현 $\frac{1}{3}$ → 올바르게는 $\frac{2}{3}$이다.

③ X
- $\frac{a}{b} = 2$와 $a + b = 1$을 함께 풀면 a는 $\frac{1}{2}$가 아니라 $\frac{2}{3}$이다. 틀린 표현 $\frac{1}{2}$ → 올바르게는 $\frac{2}{3}$이다.

④ O
- 계산 결과 $a = \frac{2}{3}$이므로 ④가 맞다.

⑤ X
- $a = 1$이면 $b = 0$이 되어 $\frac{a}{b}$가 성립하지 않고, 주어진 한계대체율 4도 만들 수 없다. 틀린 표현 1 → 올바르게는 $\frac{2}{3}$이다.

계산 결과 $a = \frac{2}{3}$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한계대체율 MRS_{XY}를 $\frac{a}{b}$만으로 보거나, $\frac{Y}{X}$를 빠뜨리는 것이다. 또 $\frac{a}{b} = 2$까지 구한 뒤 $a + b = 1$을 풀지 않으면 ②의 $\frac{1}{3}$처럼 b 값을 a로 착각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X^aY^b에서 한계대체율이 주어지면 $MRS_{XY} = \frac{a}{b} \cdot \frac{Y}{X}$로 지수의 비율을 먼저 구하고, $a + b = 1$ 같은 추가 조건으로 각 지수를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콥-더글러스의 핵심은 $MRS_{XY} = \frac{a}{b} \cdot \frac{Y}{X}$이다. 지수 비율과 재화 수량 비율을 함께 곱한다.

NoteBase

문 7. 통화공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이며,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현금-예금 비율(현금/예금)이 0.6이고, 지급준비금-예금 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0.2라면, 통화승수는?

① 1.5

② 2.0

③ 2.5

④ 3.0

⑤ 3.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예금 비율과 지급준비금-예금 비율을 이용해 통화승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금-예금 비율 $c = C/D = 0.6$, 지급준비금-예금 비율 $r = R/D = 0.2$
구해야 할 값: 본원통화 1단위가 통화공급을 몇 배로 늘리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
주의할 조건: 통화공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이고,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사용할 공식

통화승수 공식은 $m = \frac{1+c}{c+r}$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통화공급을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으로, 본원통화를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정의했으므로 $M = C + D$, $B = C + R$이고, 이를 예금 D로 나누면 $m = \frac{M}{B} = \frac{C+D}{C+R} = \frac{c+1}{c+r}$가 된다.

계산 과정

1. 현금-예금 비율을 $c = 0.6$으로 둔다.
2. 지급준비금-예금 비율을 $r = 0.2$로 둔다.
3. 공식에 대입하면 $m = \frac{1+0.6}{0.6+0.2} = \frac{1.6}{0.8} = 2.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1.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5 → 올바르게는 2.0이다.

② O
- $\frac{1.6}{0.8} = 2.0$이므로 통화승수는 2.0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2.5는 틀리다. 틀린 표현 2.5 → 올바르게는 2.0이다.

④ X
-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3.0은 틀리다. 틀린 표현 3.0 → 올바르게는 2.0이다.

⑤ X
-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3.5는 틀리다. 틀린 표현 3.5 → 올바르게는 2.0이다.

계산 결과 통화승수는 2.0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지급준비금-예금 비율만 보고 단순히 $1/r$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금 보유가 있으면 예금창출 과정에서 일부가 현금으로 빠져나가므로 통화승수는 $1/r$이 아니라 $(1 + c)/(c + r)$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승수 문제에서 현금-예금 비율 c와 지급준비금-예금 비율 r이 주어지면 $m = \frac{1+c}{c+r}$를 사용한다. 현금 보유가 없을 때만 단순 지급준비율 승수 $1/r$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이 포함된 통화승수는 분자에 $1 + c$, 분모에 $c + r$가 들어간다.

NoteBase

문 8. X재의 수요곡선은 $Q^D = 100 - P$이고, Y재의 공급곡선은 $Q^S = P - 2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X재의 수요곡선상의 한 점인 $(P, Q) = (60, 40)$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Y재의 공급곡선상의 한 점인 $(P, Q) = (100, 80)$에서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1, 공급의 가격탄력성: 0.75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1, 공급의 가격탄력성: 1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 1.5, 공급의 가격탄력성: 1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1.5, 공급의 가격탄력성: 1.25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 2, 공급의 가격탄력성: 1.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공급곡선에서 점탄력성 공식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을 이용해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X재의 수요곡선은 $Q^D = 100 - P$, Y재의 공급곡선은 $Q^S = P - 20$이다.
구해야 할 값: X재 수요곡선의 점 $(P, Q) = (60, 40)$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Y재 공급곡선의 점 $(P, Q) = (100, 80)$에서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주의할 조건: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므로 수요곡선의 기울기에서 생기는 음의 부호는 최종값에서 제거한다.

사용할 공식

점탄력성 공식은 탄력성=≤ft|(dQ)/(dP)·(P)/(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특정 두 점에서의 탄력성을 묻고 있으므로, 두 점 사이의 호탄력성이 아니라 해당 점의 기울기와 P/Q를 곱하는 점탄력성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X재 수요곡선 $Q^D = 100 - P$에서 $\frac{dQ}{dP} = -1$이다.
$\left| -1 \cdot \frac{60}{40} \right| = 1.5$
따라서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5이다.
2. Y재 공급곡선 $Q^S = P - 20$에서 $\frac{dQ}{dP} = 1$이다.
$\left|1 \cdot \frac{100}{80}\right| = 1.25$
따라서 Y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1로 보았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수요의 가격탄력성 1 → 올바르게는 1.5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0.75가 아니라 1.25이다.
② X: 두 탄력성을 모두 1로 보았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수요의 가격탄력성 1, 공급의 가격탄력성 1 → 올바르게는 각각 1.5, 1.25이다.
③ X: 수요의 가격탄력성 1.5는 맞지만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1로 보았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공급의 가격탄력성 1 → 올바르게는 1.25이다.
④ O: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 \cdot 60/40| = 1.5$, Y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cdot 100/80 = 1.25$이므로 맞다.
⑤ X: 공급의 가격탄력성 1.25는 맞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2로 보았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수요의 가격탄력성 2 → 올바르게는 1.5이다.
계산 결과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1.5, 공급의 가격탄력성 1.25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선형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기울기의 절댓값이 1이어도 탄력성은 P/Q를 곱해야 하므로, X재에서는 60/40, Y재에서는 100/80이 반영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점에서의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먼저 dQ/dP를 구하고, 그다음 문제에 주어진 점의 P/Q를 곱해 판단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암기 포인트

점탄력성은 기울기만 보는 값이 아니라 기울기 × 그 점의 P/Q이다.

NoteBase

문 9. X재의 수요곡선은 $Q^D = 200 - P$이고, X재의 공급곡선은 $Q^S = P - 4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이때 X재에 대해 단위당 2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는 750원 감소한다.

② 거래량은 10단위 감소한다.

③ 생산자의 순수취 가격은 20원 감소한다.

④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 상승한다.

⑤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100원 발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공급에서 단위세가 부과될 때 조세 전후 균형가격, 거래량, 세 부담,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D = 200 - P$, 공급곡선은 $Q^S = P - 40$이다.
단위당 2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지불가격 P_c와 생산자 수취가격 P_s 사이에 $P_c = P_s + 20$의 차이가 생긴다.
조세 후 거래량은 수요량 $200 - P_c$와 공급량 $P_s - 40$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용할 공식

조세 전 균형은 $Q^D = Q^S$로 구한다.
조세 후 균형은 $P_c = P_s + t$, $Q^D(P_c) = Q^S(P_s)$를 함께 사용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선형 수요·공급에서 (1)/(2)× 세금 × 거래량 감소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단위세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조세 전 균형:
$200 - P = P - 40$
$240 = 2P, \quad P = 120$
$Q = 200 - 120 = 80$

2. 조세 후 균형:
$P_c = P_s + 20$
공급식을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P_s = P_c - 20$이므로
$Q^S = P_s - 40 = (P_c - 20) - 40 = P_c - 60$
균형조건은
$200 - P_c = P_c - 60$
$260 = 2P_c, \quad P_c = 130$
따라서 $Q = 200 - 130 = 70$, $P_s = P_c - 20 = 110$이다.

3. 변화량:
소비자 지불가격은 120원에서 130원으로 10원 상승한다.
생산자 수취가격은 120원에서 110원으로 10원 감소한다.
거래량은 80에서 70으로 10단위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조세 전 $\frac{1}{2} \times 80 \times 80 = 3,200$원, 조세 후 $\frac{1}{2} \times 70 \times 70 = 2,450$원이므로 750원 감소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20 \times 10 = 1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소비자잉여는 조세 전 3,200원에서 조세 후 2,450원으로 줄어든다. 감소분은 750원이므로 옳다.

② O - 거래량은 조세 전 80에서 조세 후 70으로 변한다. 거래량은 10단위 감소하므로 옳다.

③ X - 생산자의 순수취 가격은 조세 전 120원에서 조세 후 110원으로 변한다. 감소분은 10원이다. 틀린 표현은 "20원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생산자의 순수취 가격은 10원 감소한다"이다.

④ O -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20원에서 130원으로 상승한다. 상승분은 10원이므로 옳다.

⑤ O -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20 \times 10 = 100$원이다. 따라서 100원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세금 20원을 생산자 수취가격 하락분으로 그대로 착각하게 만든 선지이다. 단위세 20원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이며, 이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10원, 생산자가 10원씩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문제는 먼저 조세 전 균형을 구하고, 그다음 $P_c = P_s + t$를 이용해 조세 후 소비자 가격·생산자 가격·거래량을 따로 계산한다. 세금 전체와 각 경제주체의 부담분을 구분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는 가격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P_c와 P_s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세 부담은 P_c 상승분과 P_s 하락분으로 나누어 본다.

NoteBase

문 10. 갑의 소득(I)에 대한 효용함수는 $U(I) = I^{0.5}$이다. 갑은 구매한 복권으로부터 각각 50%의 확률로 16만 원과 64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권에 대한 갑의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①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4만 원

②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5만 원

③ 확실성등가: 25만 원, 위험프리미엄: 5만 원

④ 확실성등가: 25만 원, 위험프리미엄: 6만 원

⑤ 확실성등가: 16만 원, 위험프리미엄: 6만 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효용으로 확실성등가를 구한 뒤,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빼서 위험프리미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효용함수는 $U(I) = I^{0.5} = \sqrt{I}$이다. 복권은 50% 확률로 16만 원, 50% 확률로 64만 원을 준다.
구해야 할 값: 확실성등가와 위험프리미엄이다.
주의할 조건: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이 아니라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정소득이다.

사용할 공식

기대효용은 $EU = 0.5U(16) + 0.5U(64)$이다.
확실성등가 CE는 $U(CE) = EU$를 만족하는 소득이다.
위험프리미엄은 $RP = E(I) - CE$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불확실한 복권의 효용을 확정소득으로 환산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대효용을 계산하면 $EU = 0.5\sqrt{16} + 0.5\sqrt{64} = 0.5 \times 4 + 0.5 \times 8 = 6$이다.
2. 확실성등가는 $\sqrt{CE} = 6$을 만족하므로 $CE = 36$만 원이다.
3. 기대소득은 $E(I) = 0.5 \times 16 + 0.5 \times 64 = 40$만 원이다.
4. 위험프리미엄은 $RP = 40 - 36 = 4$만 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4만 원으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확실성등가 36만 원은 맞지만 위험프리미엄 5만 원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위험프리미엄 5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위험프리미엄 4만 원'이다.
③ X: 확실성등가 25만 원과 위험프리미엄 5만 원이 모두 틀렸다. 틀린 표현은 '확실성등가 25만 원, 위험프리미엄 5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4만 원'이다.
④ X: 확실성등가 25만 원과 위험프리미엄 6만 원이 모두 틀렸다. 틀린 표현은 '확실성등가 25만 원, 위험프리미엄 6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4만 원'이다.
⑤ X: 확실성등가 16만 원과 위험프리미엄 6만 원이 모두 틀렸다. 틀린 표현은 '확실성등가 16만 원, 위험프리미엄 6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확실성등가 36만 원, 위험프리미엄 4만 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기대소득 40만 원을 곧바로 확실성등가로 착각하거나, $U(CE) = EU$에서 제곱을 하지 않고 값을 잘못 환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대효용이 6이므로 확실성등가는 6만 원이 아니라 $6^2 = 36$만 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대효용 문제는 먼저 각 결과의 효용을 확률가중평균으로 구하고, 그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정소득을 찾은 뒤,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빼서 위험프리미엄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확실성등가: $U(CE) = EU$. 위험프리미엄: 기대소득 - 확실성등가.

NoteBase

문 11.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월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②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균형이다.

③ 일반적으로 쿠르노-내쉬균형에서 각 경기자가 얻는 이윤은 담합한 경우의 이윤보다 작다.

④ 순수전략만을 허용하면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혼합전략을 허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내쉬균형을 갖게 된다.

⑤ 순차게임에서 내쉬조건은 완전균형(perfect equilibrium)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게임이론에서 우월전략, 내쉬균형, 쿠르노-내쉬균형, 혼합전략, 순차게임의 완전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 경기자가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쿠르노-내쉬균형은 수량경쟁 모형에서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조합이다.
혼합전략은 순수전략들에 확률을 부여해 무작위로 선택하는 전략이다.
순차게임의 완전균형은 단순한 내쉬균형보다 강한 조건으로, 모든 부분게임에서도 합리적인 전략이 유지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자신의 보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전략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전략 선택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② O
내쉬균형은 다른 경기자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놓고 각 경기자가 자신의 최선반응을 선택할 때 성립한다. 어느 한 경기자도 혼자 전략을 바꾸어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쿠르노-내쉬균형에서는 각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산출량을 선택한다. 담합하면 공동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산출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쿠르노-내쉬균형의 이윤은 담합 이윤보다 작다.

④ O
유한한 게임에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혼합전략까지 허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순수전략만으로는 균형이 없어도 혼합전략을 포함하면 내쉬균형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⑤ X
틀린 부분은 '내쉬조건은 완전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실제로는 순차게임에서 완전균형은 내쉬균형보다 강한 개념이므로, 단순히 내쉬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완전균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내쉬균형 조건은 완전균형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⑤의 '충분조건'이라는 표현이다. 완전균형은 순차게임에서 비합리적인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므로, 일반 내쉬균형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게임이론 개념 문제에서는 '상대방 선택과 무관'이면 우월전략, '상대방 전략이 주어졌을 때 일방적 이탈 유인 없음'이면 내쉬균형, '순차게임에서 부분게임별 합리성까지 요구'하면 완전균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균형은 내쉬균형보다 강하다. 따라서 내쉬균형이면 모두 완전균형이라는 말은 틀리고, 완전균형이면 내쉬균형이라는 방향만 성립한다.

NoteBase

문 12.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수요곡선은 $P = 100 - Q$이고,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 = Q + 20$이며, 생산과정에서 PMC에 부가해서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 MEC)은 $MEC = Q + 50$이다. (단, P와 Q는 각각 가격 및 수량을 나타낸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X재에 대해 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 뒤,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을 단위당 피구세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P = 100 - Q$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 = Q + 20$이다.
한계외부비용은 $MEC = Q + 50$이다.
외부불경제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SMC = PMC + MEC$가 된다.
구해야 할 값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단위당 세금이다.

사용할 공식

$SMC = PMC + MEC$
$P = SMC$
$t = MEC(Q^*)$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진다. 피구세는 그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만큼 부과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한다.

$SMC = (Q + 20) + (Q + 50) = 2Q + 70$

2. 사회적 최적 생산량 Q^*를 구한다.

$100 - Q = 2Q + 70$

$30 = 3Q$

$Q^* = 10$

3.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한계외부비용을 구한다.

$MEC(10) = 10 + 50 = 60$

따라서 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6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은 $PMC = Q + 20$의 절편에 해당하는 값일 뿐,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 20 → 올바르게는 $MEC(10) = 60$이다.

② X

- 30은 $100 - Q = 2Q + 70$을 정리하는 중간값 $30 = 3Q$의 왼쪽 값이다. 생산량도 세금도 아니다. 틀린 표현 30 → 올바르게는 $Q^* = 10$을 먼저 구한 뒤 세금은 60이다.

③ X

- 40은 사적 균형 생산량을 구할 때 $100 - Q = Q + 20$에서 나오는 $Q = 40$이다. 문제는 사적 균형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단위당 세금을 묻는다. 틀린 표현 40 → 올바르게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Q^* = 10$에서 $MEC = 60$이다.

④ X

- 50은 $MEC = Q + 50$의 절편이다. 피구세는 $Q = 0$에서의 외부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외부비용이다. 틀린 표현 50 → 올바르게는 $Q^* = 10$을 대입한 60이다.

⑤ O

-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 - Q = 2Q + 70$에서 $Q^* = 10$이고, 이때 $MEC = 10 + 50 = 60$이다. 따라서 단위당 세금 60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세금을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MEC로 보지 않고, PMC의 절편 20, 방정식 정리 중간값 30, 사적 균형 생산량 40, MEC의 절편 50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구세는 외부비용 함수의 절편이 아니라 Q^*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불경제 계산형 문제는 먼저 $SMC = PMC + MEC$를 만든다. 그다음 수요곡선과 SMC를 같게 놓아 사회적 최적 생산량 Q^*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Q^*를 MEC에 대입해 단위당 피구세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불경제의 교정세는 $t = MEC(Q^*)$이다. 생산량은 $P = SMC$에서 구하고, 세금은 그 생산량을 MEC에 대입해 구한다.

NoteBase

문 13.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소비와 수입은 각각 $C = 500 + 0.6Y$, $M = 200 + 0.1Y$이다. 그리고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의 합계는 5,000조 원이다. 이 경우 정부지출이 50조 원 증가한다면,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량은? (단, Y, C, M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수입이고,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0원

② 50조 원

③ 100조 원

④ 150조 원

⑤ 200조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방경제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균형국민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정부지출승수를 이용해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소비함수는 $C = 500 + 0.6Y$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은 0.6이다.
주어진 수입함수는 $M = 200 + 0.1Y$이므로 한계수입성향은 0.1이다.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의 합계는 5,000조 원이고, 정부지출이 50조 원 증가한다.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정부지출 증가는 투자 감소로 상쇄되지 않고 총수요를 그대로 증가시킨다.

사용할 공식

개방경제의 균형식은 $Y = C + I + G + X - M$이다.
정부지출승수는 다음과 같다.

$$\frac{1}{1 - c + m}$$

여기서 c는 한계소비성향, m은 한계수입성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는 총수요를 늘리지만 수입은 국내 총수요에서 빠져나가므로, 승수의 분모에 m이 더해진다.

계산 과정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수입성향을 대입한다.

$$\frac{1}{1 - 0.6 + 0.1} = \frac{1}{0.5} = 2$$

2. 정부지출 증가분 50조 원에 승수 2를 곱한다.

$$\Delta Y = 2 \times 50 = 100$$

3.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량은 100조 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0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수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구축효과가 없고 정부지출이 50조 원 증가했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은 변한다. 틀린 표현 0원 → 올바르게는 100조 원이다.

② X

- 50조 원은 정부지출 증가분만 반영하고 승수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정부지출승수가 2이므로 소득 변화는 $50 \times 2 = 100$조 원이다. 틀린 표현 50조 원 → 올바르게는 100조 원이다.

③ O

- 정부지출승수는 $1/(1 - 0.6 + 0.1) = 2$이고, 정부지출 증가분은 50조 원이다. 따라서 $\Delta Y = 2 \times 50 = 100$조 원이므로 맞다.

④ X

- 150조 원은 승수를 3으로 본 값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한계수입성향 0.1 때문에 승수가 $1/(1 - 0.6 + 0.1) = 2$로 작아진다. 틀린 표현 150조 원 → 올바르게는 100조 원이다.

⑤ X

- 200조 원은 승수를 4로 본 값에 해당한다. 이 문제의 승수는 한계소비성향만 보거나 분모를 잘못 잡아 얻는 값이 아니라 $1/(1 - c + m) = 2$이다. 틀린 표현 200조 원 → 올바르게는 100조 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수입함수 $M = 200 + 0.1Y$의 $0.1Y$를 빠뜨리는 것이다. 폐쇄경제처럼 생각하면 수입 누출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 정부지출 증가분 50조 원 자체를 답으로 고르면 승수효과를 누락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방경제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 변화가 나오면 먼저 c와 m을 찾고, 정부지출승수 $1/(1 - c + m)$를 계산한 뒤 정부지출 변화분에 곱한다.

암기 포인트

개방경제 정부지출승수는 $1/(1 - c + m)$이다. 수입은 누출이므로 한계수입성향 m은 분모에 더해져 승수를 작게 만든다.

NoteBase

문 14. 항상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상소득은 평균소득이며, 일시소득은 평균에서 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다.

②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③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에 비해 더 크다.

④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⑤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구별, 그리고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와 평균소비성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항상소득은 개인이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평균적 소득이다.
일시소득은 우연한 상여금, 일시적 손실처럼 평균에서 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사람들의 소비가 현재소득 전체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더 크게 의존한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현재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항상소득이 현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항상소득은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평균적 소득이고, 일시소득은 그 평균에서 일시적·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다.

② O
항상소득가설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소득 변동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될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계획을 세운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③ O
항상소득이 늘면 장기 소비능력이 늘어난 것이므로 소비가 크게 반응한다. 반면 일시소득 증가는 저축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커서 소비 반응이 작다. 따라서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④ X
틀린 부분은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이다.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맞춰 움직이므로 현재소득 대비 소비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올바르게는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이다.

⑤ O
평균소비성향은 소비/현재소득이고,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일시적 소득 증가는 소비를 같은 비율로 늘리지 않으므로, 분모인 현재소득만 커져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낮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항상소득가설 문제에서는 먼저 소득 증가가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를 구분한다. 지속적인 항상소득 증가는 소비를 크게 늘리고, 일시소득 증가는 소비보다 저축으로 더 많이 흡수된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비/현재소득'이므로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낮아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항상소득은 소비를 크게 움직이고, 일시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을 흔든다. 일시적 고소득이면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한다.

NoteBase

문 15. 소규모 개방경제인 갑국의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D = 400 - 2P$, $Q^S = \frac{1}{2}P - 50$이고, X재의 국제가격은 13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갑국이 X재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과 추가적인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의 합은?

① 600

② 700

③ 800

④ 900

⑤ 1,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국 개방경제에서 관세 부과 후 국내가격 변화가 생산자잉여와 경제적 순손실에 미치는 효과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D = 400 - 2P$, 공급곡선은 $Q^S = \frac{1}{2}P - 50$이다.
국제가격은 130이고, 관세는 20이므로 관세 후 국내가격은 150이다.
구해야 할 값은 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추가적인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사용할 공식

관세 후 국내가격은 $P_w + t$이다.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가격 상승분에 기존 국내공급량을 곱한 직사각형과 공급 증가분에 대한 삼각형의 합이다.
경제적 순손실은 생산 왜곡 손실과 소비 왜곡 손실의 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소국은 국제가격을 바꾸지 못하므로 관세가 국내가격만 관세액만큼 올리고, 그 결과 국내 생산 증가와 국내 소비 감소에서 후생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관세 전 국내가격은 130이다.
$Q^D = 400 - 2 \times 130 = 140$, $Q^S = \frac{1}{2} \times 130 - 50 = 15$이다.
관세 후 국내가격은 $130 + 20 = 150$이다.
$Q^D = 400 - 2 \times 150 = 100$, $Q^S = \frac{1}{2} \times 150 - 50 = 25$이다.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20 \times 15 + \frac{1}{2} \times 20 \times (25 - 15) = 300 + 100 = 400$이다.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20 \times (25 - 15) + \frac{1}{2} \times 20 \times (140 - 100) = 100 + 400 = 500$이다.
따라서 합은 $400 + 500 = 900$이다.

선지 판단

① X
600은 경제적 순손실 500과 생산자잉여 증가분 400을 모두 반영한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 600 → 올바르게는 900이다.

② X
700은 생산자잉여 증가분 또는 소비 왜곡 손실을 일부 빠뜨린 값이다. 틀린 표현 700 → 올바르게는 900이다.

③ X
800은 생산자잉여 증가분 400과 소비 왜곡 손실 400만 더하고 생산 왜곡 손실 100을 빠뜨리면 나올 수 있다. 틀린 표현 800 → 올바르게는 900이다.

④ O
관세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400이고 경제적 순손실은 500이므로 두 값의 합은 900이다.

⑤ X
1,000은 생산자잉여 증가분 400에 사중손실 500을 더한 값보다 100 크다. 틀린 표현 1,000 → 올바르게는 900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관세수입이 아니라 경제적 순손실과 추가적인 생산자잉여의 합을 묻는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에는 기존 생산량 15에 대한 직사각형 300과 추가 생산량 10에 대한 삼각형 100이 함께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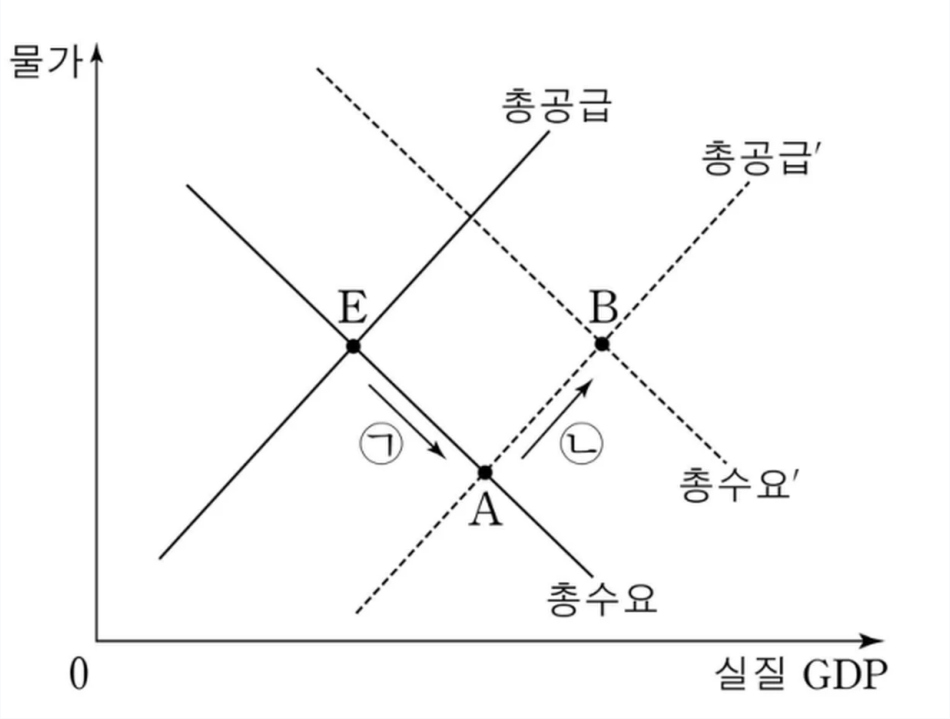
소국 관세 문제는 관세 전후 국내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 가격에서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한 뒤, 생산자잉여 변화와 사중손실 삼각형을 분리해 더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국 관세는 국내가격을 t만큼 올리고, 사중손실은 생산 왜곡 삼각형과 소비 왜곡 삼각형의 합으로 계산된다.

문 16. 다음 [그림]은 갑국 국민경제 균형점의 변화 (㉠: E → A, ㉡: A → B)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 수입 원유가격의 하락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

② ㉠: 소득세율의 인상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

③ ㉠: 가계 소비의 증가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

④ ㉠: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
㉡: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⑤ ㉠: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
㉡: 법인세율의 인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총공급 도식에서 균형점 이동의 원인이 총공급 증가인지 총수요 증가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ㄱ의 E → A는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증가하므로 총공급 증가이고, ㄴ의 A → B는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증가하므로 총수요 증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수입 원유가격 하락은 생산비를 낮추어 총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하는 E → A와 맞다.
- ㄴ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증가하는 A → B와 맞다.

② X
- ㄱ의 "소득세율의 인상"이 틀렸다. 소득세율 인상은 가처분소득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 총공급 증가 요인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성 향상, 생산비 감소처럼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와야 한다.
- ㄴ의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공급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ㄴ 자체는 A → B와 맞다.

③ X
- ㄱ의 "가계 소비의 증가"가 틀렸다. 가계 소비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므로 A → B 유형이지 E → A 유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비 하락이나 기술 진보처럼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와야 한다.
- ㄴ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도 틀렸다. 채권 매각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여 통화공급을 줄이고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올바르게는 공개시장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처럼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와야 한다.

④ X
- ㄱ의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가 틀렸다. 수출 감소는 순수출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올바르게는 총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생산비 하락 또는 생산성 상승 요인이 와야 한다.
- ㄴ의 정부 재정 지출 확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므로 A → B와 맞다.

⑤ X
- ㄱ의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이 틀렸다. 생산비 상승은 총공급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 상승과 실질 GDP 감소를 가져온다. 올바르게는 임금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기술 진보처럼 생산비를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와야 한다.
- ㄴ의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나 생산 활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이 선지는 ㄱ이 E → A와 반대 방향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그래프의 이동 방향을 모두 총수요 변화로만 보는 것이다. E → A는 실질 GDP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므로 총수요 증가가 아니라 총공급 증가이다. A → B는 실질 GDP와 물가가 함께 증가하므로 총수요 증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와 실질 GDP가 반대로 움직이면 총공급 변화부터 본다. 물가 하락과 GDP 증가는 총공급 증가, 물가 상승과 GDP 감소는 총공급 감소이다. 물가와 실질 GDP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총수요 변화부터 본다. 물가와 GDP가 함께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이다.

암기 포인트

총공급 증가: 생산비 하락 → 물가 하락, GDP 증가. 총수요 증가: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증가 또는 확장적 통화정책 → 물가 상승, GDP 증가.

NoteBase

문 17. 2021년 초에 갑국 경제의 생산가능인구는 4,0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5%, 그리고 실업자는 500만 명이다. 또한, 갑국에서 2021년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20%이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4%이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2022년 초의 예상 실업률은? (단, 근삿값으로 구하시오.)

① 11.1%

② 12.5%

③ 14.5%

④ 15.5%

⑤ 16.7%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로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이동을 반영하여 예상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21년 초 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75%, 실업자 500만 명이다.
구해야 할 값: 2022년 초 예상 실업률이다.
주의할 조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인구도 변하지 않는다. 실업자의 취업과 취업자의 실직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이동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자 수를 주고 실업률을 묻고 있으므로,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다음 실업자 수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21년 초 경제활동인구는 4,000만 × 0.75 = 3,000만 명이다.
2. 2021년 초 취업자는 3,000만 - 500만 = 2,500만 명이다.
3.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은 500만 × 0.20 = 100만 명이므로 실업자는 100만 명 감소한다.
4.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는 인원은 2,500만 × 0.04 = 100만 명이므로 실업자는 100만 명 증가한다.
5. 두 변화가 서로 상쇄되어 2022년 초 실업자는 500만 - 100만 + 100만 = 500만 명이다.
6. 따라서 예상 실업률은 (500만)/(3,000만) × 100 = 16.666…%이고, 근삿값은 16.7%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16.7%이므로 11.1%는 틀리다. 틀린 표현 11.1% → 올바르게는 16.7%이다.

② X
- 계산 결과는 16.7%이므로 12.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2.5% → 올바르게는 16.7%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16.7%이므로 14.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4.5% → 올바르게는 16.7%이다.

④ X
- 계산 결과는 16.7%이므로 15.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5.5% → 올바르게는 16.7%이다.

⑤ O
- 2022년 초 실업자 수가 500만 명, 경제활동인구가 3,000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500만 / 3,000만 = 1/6, 즉 약 16.7%이다. 따라서 ⑤가 맞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취업자 기준의 4% 실직자 수를 실업자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실업자의 취업 감소분만 반영하고 취업자의 실직 증가분을 빠뜨리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실업자의 취업 100만 명 감소와 취업자의 실직 100만 명 증가가 같아서 최종 실업자 수가 그대로 500만 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이동 문제는 경제활동인구를 먼저 고정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초기값을 나눈 뒤, 각 확률의 기준 집단이 실업자인지 취업자인지를 구분하여 실업자 수의 순변화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이다. 실업자의 취업은 실업자 감소, 취업자의 실직은 실업자 증가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제시문은 갑국에서 특정 연도에 발생한 생산 활동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어부 A가 미끼와 그물 등의 원료구입비 10만 원을 들여 참치를 잡았고, 이를 중간 도매상 B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중간 도매상 B는 참치의 일부를 C 횟집에 80만 원에 팔았고, 나머지는 D 통조림 공장에 90만 원에 팔았다. D 통조림 공장은 130만 원어치의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였다.

① 200만 원
② 210만 원
③ 220만 원
④ 230만 원
⑤ 240만 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를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계산할 때 중간재 거래를 제외하고 최종 판매분만 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가 B에게 판 참치 100만 원, B가 C 횟집에 판 참치 80만 원, B가 D 통조림 공장에 판 참치 90만 원, D가 수출한 참치 통조림 130만 원이다.
구해야 할 값: 갑국의 해당 연도 GDP이다.
주의할 조건: A가 B에게 판 100만 원과 B가 D에게 판 90만 원은 이후 판매·가공에 들어간 중간거래이므로 최종생산물 가치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문항에서 C 횟집의 추가 생산·판매액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C 횟집에 판매된 80만 원은 이 거래 흐름에서 최종 판매분으로 처리한다.

사용할 공식

GDP=최종재 가치의 합
이 공식을 쓰는 이유: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이다. 같은 참치가 A, B, D 단계를 거치며 여러 번 거래되므로 중간재 거래를 모두 더하면 중복 계산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B가 C 횟집에 판 참치 80만 원은 최종 판매분으로 본다.
2. D 통조림 공장이 만든 참치 통조림 130만 원은 해외로 수출된 최종재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3. 따라서 GDP는 80만 원 + 130만 원 = 210만 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0만 원은 A의 원료구입비 10만 원을 빼거나 중간단계 부가가치를 일부만 반영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20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최종 판매분 80만 원과 수출 통조림 130만 원을 합한 210만 원이다.

② O
- 최종 판매분은 C 횟집에 판매된 80만 원과 해외로 수출된 통조림 130만 원이다. 합계가 210만 원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X
- 220만 원은 210만 원에 A의 원료구입비 10만 원을 추가로 더한 값이다. 원료구입비는 A의 참치 판매액 100만 원에 이미 반영되는 비용 항목이므로 최종재 계산에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2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210만 원이다.

④ X
- 230만 원은 최종 판매분 210만 원에 B가 D에게 판 중간재 90만 원 중 일부를 잘못 섞어 계산한 값으로 볼 수 있다. B가 D에게 판 90만 원은 D의 통조림 130만 원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더하면 중복 계산이다. 틀린 표현은 "23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210만 원이다.

⑤ X
- 240만 원은 A가 B에게 판 100만 원과 D의 수출액 130만 원에 원료구입비 10만 원 등을 잘못 더할 때 나오는 값이다. A의 100만 원은 B의 이후 판매액에 이어지는 중간거래이고, 원료구입비도 최종재 가치에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4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210만 원이다.

계산 결과 210만 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거래액을 모두 더하는 중복 계산이다. A가 B에게 판 100만 원, B가 D에게 판 90만 원은 뒤의 판매액에 포함되는 중간재 거래이므로 GDP의 최종재 접근에서는 제외된다. 원료구입비 10만 원도 최종재 가치에 별도로 더하는 항목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계산형 문제는 먼저 최종재인지 중간재인지 구분한 뒤, 최종 소비·투자·정부구입·수출로 끝나는 금액만 더한다. 같은 재화가 생산단계를 거쳐 다시 팔리면 앞 단계 거래액은 뒤 단계 최종재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GDP는 최종재만 더한다. 중간재는 빼고, 수출은 최종재 판매로 포함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제시문에 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자: 최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갑: 기업의 투자 감소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을: 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물가 하락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① 갑은 총수요곡선이 수축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갑은 피구효과(Pigou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③ 갑은 긴축통화정책보다 확대통화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을은 총공급 충격에 의해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⑤ 을은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물가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총수요 감소로 보는 경우와 총공급 증가로 보는 경우를 구별하고,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물가하락폭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 감소형 디플레이션: 투자 감소처럼 지출이 줄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물가와 산출이 함께 하락하는 경우이다.
총공급 증가형 디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하락처럼 생산비가 낮아져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물가는 하락하지만 실질 GDP는 증가할 수 있는 경우이다.
피구효과: 물가 하락으로 화폐잔고의 실질가치가 커져 소비와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이다.
총공급이 증가할 때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 물가 변화보다 산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총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산출 변화보다 물가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은 기업의 투자 감소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보므로 총수요의 구성요소인 투자가 줄어 총수요곡선이 수축적으로 이동한다고 본 것이다.

② O
갑은 투자 감소로 인한 총수요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가 하락이 실질화폐잔고를 늘려 소비와 총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피구효과를 고려한 설명은 아니다.

③ O
갑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총수요 부족을 완화하려면 긴축통화정책보다 확대통화정책이 더 적합하므로 갑은 확대통화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O
을은 최근 물가 하락의 원인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본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생산비를 낮추는 긍정적 총공급 충격이므로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실질 GDP는 증가할 수 있다.

⑤ X
틀린 부분은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물가하락폭이 더 크다'이다. 총공급 증가 충격에서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이 크게 늘어 물가하락폭은 작고 산출 증가폭은 크다. 올바르게는 총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물가하락폭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디플레이션을 모두 경기침체 신호로만 보는 것이다. 갑의 설명은 투자 감소에 따른 총수요 위축이고, 을의 설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총공급 증가이다. 특히 ⑤는 총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보다 수량이 더 크게 조정된다는 점을 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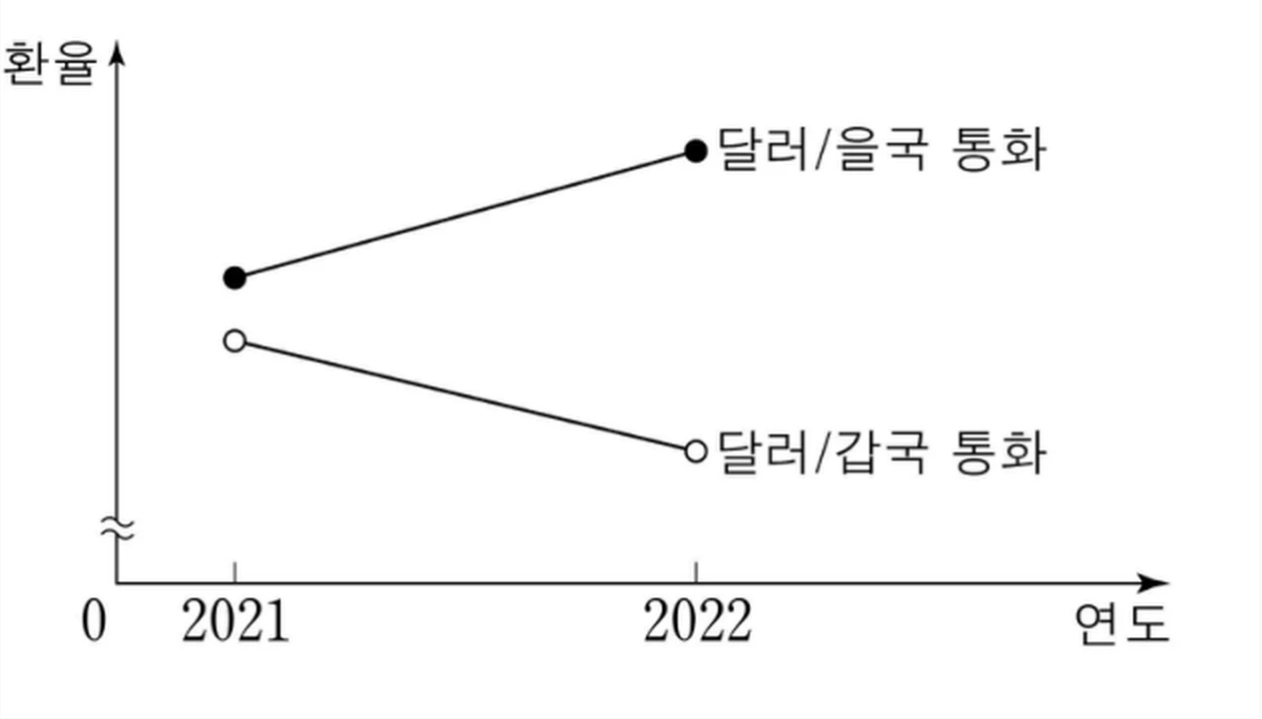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투자·소비 감소이면 총수요 감소로 보고 물가와 산출이 함께 하락한다고 판단한다. 원자재 가격 하락·생산성 상승이면 총공급 증가로 보고 물가는 하락하지만 산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총공급 충격에서 총수요가 탄력적이면 산출 조정이 크고 가격 조정은 작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감소형 디플레이션은 불황형, 공급 증가형 디플레이션은 비용 하락형이다. 총공급 증가 시 총수요가 탄력적이면 물가하락폭은 작고 산출증가폭은 크다.

NoteBase

문 20. 갑국과 을국의 환율 변화 추세가 다음 [그림]과 같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 변화 이외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하고,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② 갑국 기업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갑국 통화로 조기에 환전할수록 유리하다.

③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을국 기업은 부채 상환을 미룰수록 불리하다.

④ 을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⑤ 갑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사람은 여행 일정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그래프에서 달러/갑국 통화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을국 통화 환율은 상승했다는 점을 읽고, 각국 통화 가치와 달러 표시 가격·부채 부담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이 환율이고, 범례가 달러/을국 통화와 달러/갑국 통화임을 확인한다.
2.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달러/을국 통화는 상승하고, 달러/갑국 통화는 하락했음을 확인한다.
3. 달러/각국 통화 환율이 상승하면 해당 통화 1단위의 달러 가격이 오른 것이고, 하락하면 해당 통화 1단위의 달러 가격이 내린 것으로 보아 선지와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자료에서 달러/갑국 통화 환율은 하락하므로 갑국 통화의 달러 가격은 낮아진다. 따라서 갑국 제품의 자국통화 가격이 그대로라면 달러 표시 가격도 하락한다.
자료에서 달러/을국 통화 환율은 상승하므로 을국 통화의 달러 가격은 높아진다. 따라서 을국 제품의 자국통화 가격이 그대로라면 달러 표시 가격도 상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그래프에서 달러/갑국 통화는 2021년보다 2022년에 낮아지고, 달러/을국 통화는 2021년보다 2022년에 높아진다.
- 달러/갑국 통화 하락은 갑국 통화 1단위의 달러 가격 하락을 뜻하므로 갑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달러/을국 통화 상승은 을국 통화 1단위의 달러 가격 상승을 뜻하므로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② X
- 근거 위치: 그래프에서 달러/갑국 통화는 2022년으로 갈수록 하락한다.
- 달러/갑국 통화가 하락하면 달러 1단위로 바꿀 수 있는 갑국 통화의 양은 오히려 늘어난다. 따라서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는 조기에 환전할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환율 하락 후에 환전할수록 갑국 통화 수령액이 커진다.
- 틀린 표현: "조기에 환전할수록 유리하다" → 올바르게는 "나중에 환전할수록 유리하다"이다.

③ X
- 근거 위치: 그래프에서 달러/을국 통화는 2022년으로 갈수록 상승한다.
- 달러/을국 통화가 상승하면 을국 통화 1단위가 더 많은 달러와 교환되므로 달러 표시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을국 통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상환을 미룰수록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해진다.
- 틀린 표현: "부채 상환을 미룰수록 불리하다" → 올바르게는 "부채 상환을 미룰수록 유리하다"이다.

④ X
- 근거 위치: 그래프에서 달러/갑국 통화는 하락하고 달러/을국 통화는 상승한다.
- 갑국 통화의 달러 가격은 낮아지고 을국 통화의 달러 가격은 높아지므로, 을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의 가치는 낮아진다.
- 틀린 표현: "가치는 더 높아진다" → 올바르게는 "가치는 더 낮아진다"이다.

⑤ X
- 근거 위치: 그래프에서 달러/갑국 통화는 2022년으로 갈수록 하락한다.
- 미국 사람이 갑국을 여행하려면 달러를 갑국 통화로 바꾸어야 한다. 달러/갑국 통화가 하락하면 갑국 통화가 달러 기준으로 더 싸지므로, 같은 달러로 더 많은 갑국 통화를 얻을 수 있는 나중 일정이 유리하다.
- 틀린 표현: "여행 일정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다" → 올바르게는 "여행 일정을 미루는 편이 유리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환율 표기를 반대로 읽는 것이다. 이 그래프는 달러/각국 통화의 변화이므로 각국 통화 1단위의 달러 가격을 먼저 읽어야 한다. ②와 ⑤는 달러를 각국 통화로 바꾸는 상황이고, ③은 달러 부채를 갚기 위해 필요한 을국 통화 부담을 묻는 상황이므로 같은 환율 변화라도 거래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 표기의 분자와 분모를 확인한다. 달러/자국 통화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승하고, 달러/자국 통화가 하락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한다. 그다음 상품 가격, 수출 대금 환전, 외화부채 상환, 여행 비용 중 어느 거래 방향인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달러/자국 통화 상승은 자국 통화 강세, 달러/자국 통화 하락은 자국 통화 약세이다.

NoteBase

문 21. 다음 [표]는 갑국의 2021년 국제수지표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억 달러)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120	-20	10	-35

① 갑국의 경상수지는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②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기록하는 항목은 적자이다.

③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다.

④ 해외 공적개발 원조액을 기록하는 항목은 흑자이다.

⑤ 재화의 수입액은 수출액에 비해 120억 달러 많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의 구성 항목과 각 항목의 흑자·적자를 읽어 환율 및 거래 성격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억 달러임을 확인한다.
2.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값임을 확인한다.
3. 표의 부호를 기준으로 양수는 흑자, 음수는 적자로 판단한다.

핵심 근거

표에서 상품수지는 120, 서비스수지는 -20, 본원소득수지는 10, 이전소득수지는 -35이다. 따라서 갑국의 경상수지는 $120 + (-20) + 10 + (-35) = 75$로 흑자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화 공급을 늘리고 갑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 상승 요인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상품수지 120, 서비스수지 -20, 본원소득수지 10, 이전소득수지 -35.
- 네 항목의 합이 75로 경상수지 흑자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 상승 요인이므로 옳다.

② X
- 근거 위치: 본원소득수지 10.
-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본원소득수지에 기록되지만, 표의 본원소득수지는 10으로 흑자이다. 틀린 표현은 "적자"이고, 올바르게는 "본원소득수지는 흑자"이다.

③ X
- 근거 위치: 서비스수지 -20.
- 서비스수지가 음수이므로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많다. 틀린 표현은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많다"이고, 올바르게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다"이다.

④ X
- 근거 위치: 이전소득수지 -35.
- 해외 공적개발 원조액은 대가 없이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이전소득수지에 기록된다. 표의 이전소득수지는 -35로 적자이다. 틀린 표현은 "흑자"이고, 올바르게는 "이전소득수지는 적자"이다.

⑤ X
- 근거 위치: 상품수지 120.
-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다. 상품수지가 120이므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20억 달러 많다. 틀린 표현은 "수입액은 수출액에 비해 120억 달러 많다"이고, 올바르게는 "수출액은 수입액에 비해 120억 달러 많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국제수지표의 부호를 반대로 읽는 것이다. ③의 서비스수지 -20은 유입 초과가 아니라 유출 초과이고, ⑤의 상품수지 120은 수입 초과가 아니라 수출 초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수지표에서는 먼저 항목명과 부호를 확인한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수출·수입 또는 유입·유출의 차이이고, 양수는 흑자, 음수는 적자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을 합하면 경상수지이고, 플러스는 흑자, 마이너스는 적자이다.

NoteBase

문 22. 다음 제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모두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교역 시 양국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한다. 다음 [표]는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2시간	3시간
Y재	4시간	㉠ 9시간

① 갑국에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② 갑국은 X재와 Y재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③ 을국은 X재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④ ㉠이 6시간으로 감소하면 양국이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Y재 3단위와 X재 5단위가 교환되면 양국은 모두 이득을 얻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기회비용, 절대우위, 비교우위, 교역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국: X재 1단위에 2시간, Y재 1단위에 4시간이 필요하다.
을국: X재 1단위에 3시간, Y재 1단위에 9시간이 필요하다.
양국은 노동만으로 생산하므로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절대우위가 있고, 한 재화 생산을 위해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작을수록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X재 1단위 노동시간)/(Y재 1단위 노동시간) 단위의 Y재이다.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 노동시간)/(X재 1단위 노동시간) 단위의 X재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노동시간표가 각 재화 1단위 생산의 투입량을 주고 있으므로, 같은 노동시간으로 대신 생산할 수 있었던 다른 재화의 양이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갑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2/4 = 1/2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4/2 = 2단위의 X재이다.
을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3/9 = 1/3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9/3 = 3단위의 X재이다.
따라서 을국은 X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갑국은 Y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선지 판단

① O
갑국에서 X재 1단위는 2시간이 필요하고, 같은 2시간으로 Y재 2/4 = 1/2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② O
절대우위는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판단한다. 갑국은 X재 2시간으로 을국의 3시간보다 적고, Y재 4시간으로 을국의 9시간보다 적으므로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O
을국의 X재 기회비용은 Y재 1/3단위이고 갑국의 X재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을국의 X재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O
㉠이 6시간으로 감소하면 을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3/6 = 1/2단위의 Y재가 된다. 갑국의 X재 기회비용도 Y재 1/2단위이므로 양국의 기회비용이 같아 비교우위 차이가 사라지고 교역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X
Y재 3단위와 X재 5단위가 교환되면 Y재 1단위의 교환대가는 X재 5/3단위이다. 갑국은 Y재 1단위를 생산할 때 X재 2단위를 포기하므로, Y재 3단위를 내고 최소 X재 6단위보다 많이 받아야 이득이다. X재 5단위만 받으면 갑국은 손해를 본다. 틀린 표현은 '양국은 모두 이득을 얻는다'이고, 올바르게는 '을국은 이득을 얻지만 갑국은 이득을 얻지 못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교환비율이 한쪽에만 유리해도 '양국 모두 이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교역이득은 각국의 기회비용 사이에 교환비율이 놓일 때만 양국 모두에게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간표 문제는 먼저 각국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비교우위 재화를 정한 뒤, 제시된 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이다.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이득이다.

NoteBase

문 23. 케인즈(Keynes)의 거시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목임금의 단기적인 하방경직성을 강조한다.

②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수요 증대를 통해 균형국민소득과 잠재적 국민소득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갭(Inflationary Gap)이 발생한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는 실질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한다.

⑤ LM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케인즈 거시경제이론의 핵심인 임금의 하방경직성, 유효수요 부족, 재정정책 효과, LM곡선의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케인즈 이론은 가격과 임금이 단기에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수요 부족으로 비자발적 실업과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국민소득보다 낮아져 디플레이션갭 또는 침체갭이 발생하고, 정부지출 확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처방을 중시한다.
LM곡선이 매우 완만한 경우 이자율 상승이 작아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제한되고,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명목임금은 단기에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방경직성을 케인즈 이론의 중요한 전제로 본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이 임금 하락만으로 즉시 완전고용을 회복한다고 보지 않는다.

② O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을 총수요 부족에서 찾는다. 따라서 총수요를 늘려 실제 균형국민소득과 잠재적 국민소득 사이의 부족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O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국민소득보다 높으면 총수요가 완전고용 산출 수준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반대로 균형국민소득이 잠재적 국민소득보다 낮으면 디플레이션갭 또는 침체갭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정부지출의 증가는 실질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한다'이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밀어낸다는 구축효과를 강조하는 설명이다. 케인즈 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유휴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총수요와 국민소득을 확대한다고 보며, 특히 LM곡선이 완만하면 이자율 상승과 구축효과가 작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며, 케인즈적 상황에서는 구축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

⑤ O
케인즈적 유동성선호 이론에서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화폐수요의 반응이 클 수 있고, 특히 유동성 함정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LM곡선이 매우 완만하다. LM곡선이 완만하면 재정정책의 국민소득 확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정부지출 확대가 항상 민간 부문을 밀어낸다는 식으로 구축효과를 전면에 둔다. 그러나 이 문항은 케인즈 이론의 특징을 묻고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낮은 구축효과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케인즈 이론 문항에서는 '임금·가격 경직성, 총수요 부족, 재정정책 유효, 완만한 LM곡선, 작은 구축효과'를 같은 묶음으로 판단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강하게 구축한다'는 표현은 케인즈식 설명과 반대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는 총수요 확대와 재정정책 유효성을 강조하고, 완만한 LM곡선에서는 구축효과가 작다고 정리한다.

NoteBase

문 24. 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솔로우(Solow) 성장 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단, 기술진보는 없으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총생산함수: $Y = 2L^{0.5}K^{0.5}$ (단, Y는 총산출량, L은 총노동량, K는 총자본량이다.)
- 감가상각률 5%, 인구증가율 5%, 저축률 20%

① 0.5

② 1

③ 4

④ 8

⑤ 16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의 정상상태 조건을 이용해 자본 1단위당 산출량, 즉 Y/K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Y = 2L^{0.5}K^{0.5}$이다.
감가상각률은 5%, 인구증가율은 5%, 저축률은 20%이다.
기술진보는 없으므로 정상상태 조건에서 필요한 투자율은 $n + \delta = 0.05 + 0.05 = 0.10$이다.
구해야 할 값은 1인당 산출량 y가 아니라 자본 1단위당 산출량 Y/K이다.

사용할 공식

1인당 생산함수는 $y = Y/L = 2k^{0.5}$이다.
솔로우 모형의 정상상태 조건은 $sy = (n + \delta)k$이다.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Y/K = y/k$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려면 저축으로 마련되는 투자 sy가 인구증가와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투자 $(n + \delta)k$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인당 생산함수는 $y = 2k^{0.5}$이다.
2. 정상상태 조건에 대입하면 $0.20 \times 2k^{0.5} = 0.10k$이다.
3. 정리하면 $0.4k^{0.5} = 0.1k$이고, $k > 0$에서 양변을 $k^{0.5}$로 나누면 $0.4 = 0.1k^{0.5}$이다.
4. 따라서 $k^{0.5} = 4$, $k = 16$이다.
5. 이때 $y = 2 \times 16^{0.5} = 8$이므로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Y/K = y/k = 8/16 = 0.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자본 1단위당 산출량 Y/K는 0.5이므로 옳다.
② X - 1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이고, 올바르게는 $Y/K = 0.5$이다.
③ X - 4는 정상상태의 $k^{0.5}$, 즉 $\sqrt{k}$ 값이다. 틀린 표현은 "4"이고, 올바르게는 $Y/K = 0.5$이다.
④ X - 8은 정상상태의 1인당 산출량 y이다. 틀린 표현은 "8"이고, 올바르게는 자본 1단위당 산출량 $Y/K = 0.5$이다.
⑤ X - 16은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 k이다. 틀린 표현은 "16"이고, 올바르게는 자본 1단위당 산출량 $Y/K = 0.5$이다.
계산 결과 0.5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정상상태에서 구한 여러 중간값을 답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sqrt{k} = 4$, $k = 16$, $y = 8$은 모두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값이지만, 문제는 자본 1단위당 산출량 Y/K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정상상태 문제는 먼저 $sy = (n + \delta)k$로 k^*를 구하고, 그다음 문제에서 묻는 값이 k, y, 또는 Y/K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정상상태는 $sy = (n + \delta)k$이고, 자본 1단위당 산출량은 $Y/K = y/k$이다.

NoteBase

문 25.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정금리를 지급받는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② 먼델-토빈(Mundell-Tobin) 효과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투자의 증가를 말한다.

③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수요견인설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다.

④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⑤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의존하고 현재의 통화공급은 고정된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현재의 물가수준도 높아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유형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질이자율, 투자, 화폐수요,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명목계약이 이미 정해진 뒤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져 실질가치가 재분배되는 현상이다.
먼델-토빈 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실질화폐잔고 보유의 매력을 낮추고 실물자산·자본 보유를 늘려 실질이자율 하락과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과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형적으로 비용상승 또는 공급충격형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
초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와 재정적자 화폐화가 결합될 때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정된 명목금리를 받는 채권자는 상환받는 원리금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므로 손해를 본다.

② O
먼델-토빈 효과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질화폐잔고 수요가 줄고 자본 등 실물자산 보유가 상대적으로 늘면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수요견인설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반적인 총수요 확대보다는 원유가격 상승 같은 공급충격 또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으로 설명된다. 올바르게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 또는 공급충격형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화발행으로 보전하면 통화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O
실질화폐잔고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음의 영향을 받는다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명목이자율 상승을 통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인다. 현재 통화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실질화폐잔고가 줄어들도록 현재 물가수준이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만 보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므로 총수요 증가보다 공급충격·비용상승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먼저 예상 여부, 수요견인인지 비용상승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과 실질화폐잔고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판단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공급충격 또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고정금리 채권자에게 손해, 먼델-토빈 효과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후 실질이자율 하락·투자 증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충격·비용상승이다.

NoteBase